

“가장 안전한 바닷길, 목포에서 시작합니다”

●서무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목포지사장 취임

해양사고 예방 위해 선박검사 강화·맞춤형 교육 제공 친환경 소형어선 연구 적극 참여 조선산업 발전 기여

“해양 안전과 목포 발전을 위해 섬 없이 노력하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목포지사가 될 것을 약속합니다.”

서무천(48·사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목포지사가 지난 2일 취임했다.

서 지사장은 목포에서 10여년간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공단의 미션인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바닷길’을 구현하고 지역사회의 해양 안전과 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서 지사장은 “해양교통안전공단 목포지사는

광주와 전남 13개 시·군을 관할하는 서남해권 해양안전의 요충지이고, 목포는 국가 경제와 수산업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중요한 곳”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해양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지역 주민 및 해양수산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 발전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겠다”고 다짐했다.

이와 함께 서 지사장은 해양 사고를 예방하고 줄이기 위해 체계적이고 철저한 안전 관리 체계 확립을 당부했다. 이를 위해 과학적인 선박 검사와 안전 점검을



강화하고, 공단이 개발한 해양교통안전 정보시스템(MTIS)을 적극 활용해 해상 안전을 강화하는 한편, 관내 해양 사고를 분석해 맞춤형 예방 교육을 제공할 방침이다.

서 지사장은 “국민 눈높이에 맞춘 신속하고 투명한 민원 서비스를 위해 선박 검사 전자증서 서비스와 카카오톡 기반의 ‘해수호봇’을 확대하겠다”며 “고객의 의견을 경청하며 신뢰받는 공단이 되기 위해 적극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이어 “목포와 영암에서 진행되고 있는 전남도의 친환경 HDPE 소형어선 규제자유특구 사

업에 참여해 친환경 소형어선 건조 기술 연구와 관련 기준 개발을 주도하고 있다”며 “이 사업이 지역 조선산업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해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 지사장은 또 “내년 1월3일 시행되는 어선 안전조업법 개정안을 통해 어선원 안전보건체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앞장서겠다”며 “지역사회와 협력해 안전한 해양 환경을 구축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든든한 동반자로 자리매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영암 출신인 서 지사장은 광주 송일고와 목포해양대학교 항해학과를 졸업했으며, 2005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입사해 해양빅데이터실장, 기술사업실장, 도면승인실장, 고층지상장 등을 역임했다. /목포=정해선기자

‘12월 5·18민주유공자’ 故 장기언씨



12월 이달의 5·18민주유공자 고(故) 장기언(사진)씨가 선정됐다.

3일 국립5·18민주묘지 관리소에 따르면 장씨는 1930년 11월20일 생으로, 1980년

당시 신민당 전남도지부 상임위원장으로 재직 중 5월19일 금남로에서 시민을 폭행하는 공수부대원에게 항의하다 구타를 당했으며, 이후 수습대책위원회에 참여해 활발히 활동했다.

5·18민주묘지 관리소 관계자는 “故 장기언씨는 제1묘역(67억9천)에 잠들어 계신다”며 “민주묘지를 방문하면 언제든지 참배할 수 있고 앞으로도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추모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성학기자

김승휘 광주 서구자원봉사센터 이사장 취임



광주 서구자원봉사센터는 3일 ‘서구청 들불홀에서 김승휘(55·사진) 제9대 이사장 취임식 및 2024 자원봉사자 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오는 5일 자원봉사자의 날을 기념해 열린 이번 행사는 자원봉사자와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장 취임식 ▲자원봉사 유공자 표창 ▲2024 자원봉사자대회 순으로 진행됐다.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한 후 현재 법무법인 ‘이우스’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하는 김 이사장은 지역사회의 법률 지원과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김 이사장은 취임사에서 “자원봉사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자원봉사가 지역사회를 움직이는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취임식에서는 자원봉사 유공자 표창도 이뤄졌다. 1365 자원봉사 시스템 등록 실적에 따라 ▲자봉이상(6천 시간 이상 1만 시간 미만) 50명 ▲해운이상(3천 시간 이상 5천 시간 미만) 50명을 선정해 영예 인증서를 전달했다. /주성학기자

“군민 안전 최우선...공감받는 치안 활동 전개”

‘취임 100일’ 배상진 장성경찰서장...범죄예방 환경 개선 예산 확보 등 성과

배상진(사진) 제8대 장성경찰서장이 3일 취임 100일을 맞아 앞으로의 치안 활동 포부를 밝혔다. 지난 8월26일 취임한 배 서장은 “따뜻한 장성경찰, 행복한 장성군민”이라는 슬로건 아래 군민의 안전 지키기에 누구보다 바쁜 시간을 보내왔다. 지자체와 협업체 범죄 예방 환경 개선 예산 23억6천만원을 확보하고 지능형 CCTV 신규 설치 등 치안 인프라를 구축했다.

또한 자체 특수 시책으로 ‘황룡강 가을꽃 축

제’와 ‘교통안전 집중활동의 날’ 등 시기·테마별 교통안전 대책을 통해 지역 내 불안전 요인을 선제적으로 발굴·제거하며 안심 공동체 구축에 기여했다.

조직 내 소통과 화합을 중요시하는 배 서장은 경찰서 전 직원이 참여하는 ‘필드데이 현장간담회’, ‘소통 간담회’, ‘장성BEST경찰’ 등 특수 시책을 발굴해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화합을 통해 활기찬 직장 문화 조성에도 앞장섰다.

최근에는 부서 중심의 맞춤형 예방 시책으로 가능해·세대별 ‘공감토크’를 개최, 의무위반 예방 공감을 통해 의무위반 ZERO 달성과 클린장성경찰 확립에 노력하고 있다.

배상진 서장은 “치안 활동의 궁극적인 목표는 ‘군민의 안전’이며, 안정적으로 치안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경찰과 지역사회 전체가 긴밀하게 소통하고 유기적으로 협력한 결과”라며 “장성군민이 안전하고 평온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민에게 공감받는 경찰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정성=김문태기자



광주 민주시민교육 교사연구회 ‘참여·실천 세미나’

광주시교육청 산하 중등교원들로 구성된 민주시민교육 교사연구회는 “최근 담양 죽녹원 인근 한옥 강당에서 ‘지속가능한 민주사회를 위한 참여와 실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사)한국인권교육원, UN SDGs NPP(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참여와 실천연대)와 공동 주최한 이번 세미나는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환경 및 정치 참여라는 융합 주제를 중심으로 기초 강연과 토론이 이뤄졌다.

기조 발표자로 나선 최형식 전 담양군수는 4선 군수 재임 시절 20여년 전부터 추진해 온 지

속가능한 생태도시 담양의 구상 배경, 정책, 우수 사례들을 생생하게 전달해 눈길을 끌었다. 최 전 군수는 생태도시로의 전환 과정에서 겪었던 주민들과의 갈등, 설득 과정, 정책 집행 과정 등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참석자들과 소통하며 성공적인 지방자치 사례를 공유했다.

최정현 민주시민교육 교사연구회장(광주송일중 교감)은 “유관 시민단체, 지역 주민, 교사들이 함께하는 시민 교육이 더욱 활성화돼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다기기자

최강남 지역아동센터 광주지원단장 ‘NIE 사업 기여’ 광주매일신문 표창

최강남(사진 오른쪽) 지역아동센터 광주지원단장이 3일 오후 광주매일신문 NIE(Newspaper in Education: 신문 활용 교육) 및 신문 만들기 사업에 기여한 공로로 표창을 받았다.

NIE는 학생들이 직접 신문을 읽고 배우며 창의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

최 단장은 본보 NIE 신문 만들기 사업에 대한 지역아동센터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며 NIE의 필요성을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이와 함께 광주지원단 차원에서 지역아동센터 학생들이 NIE를 통해 지역사회와 글로벌 이슈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았다.

최강남 단장은 “NIE와 신문 만들기 학생들이 글쓰기 능력 및 자기 표현을 향상시켰다”며 “앞으로도 광주 지역아동센터 학생들이 NIE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최명진기자

광주지역 봉사단체 정우회 ‘송년의 밤’ 성료

광주지역 봉사단체인 정우회는 “최근 남구 송암동 송암가든에서 ‘情友會(정우회)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송년의 밤은 이정선 광주시 교육감, 김재오 정우회 회장, 오은주 정우회 사무국장 등 회원과 내빈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행사에서는 지난 2005년 10월 창립한 덕선봉사회를 명칭을 정우회로 변경했으며, 지역 소외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또 다가오는 새해에 대한 희망도 전했다.

정우회는 창립 이래 매월 노인당 봉사와 어려운 이웃들에게 무료로 음식을 제공하고 쌀 배달, 다문화가정 도배 및 장판 교체, 김장김치 봉사, 콩국수 잔치, 사랑의 연탄배달 등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

김재오 회장은 “광주 전 지역에 봉사를 다니기도 하지만 남구를 중심으로 많은 봉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힘이 닿는 한 지역 소



외계층에 대한 봉사를 통해 그들에게 꿈과 희망을 줘 따뜻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성학기자



빛고을건강타운, 빛다운 정책참여단 성과공유회

광주사회서비스원 소속 빛고을노인건강타운(본부장 김용덕)은 3일 오전 공영장에서 회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빛다운 정책참여단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성과공유회에서는 올해 ‘빛다운 정책참여단’으로 활동한 패널리스트 한데 모여 ▲2024년 활동 내용 공유 및 사업성과 보고 ▲정책(안) 설명 ▲참여소감 발표 등을 통해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기수희기자

광주시 시민소통과도 이 자리에 함께 해서 추진 중인 ‘광주ON’과 ‘시민정책참여단’에 대해 소개했으며, 빛고을타운에서 공공정책패널로 활동하고 있는 이들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시책에도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용덕 본부장은 “빛다운 정책참여단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첫 발을 내딛었으니 내년에는 좀 더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수희기자

담양농협, 제1기 다문화여성대학 수료

담양농협협동조합은 “최근 농협 2층 대회의실에서 제1기 다문화여성대학 수료식과 종강식을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행사는 담양농협 김법진 조합장, 강성수 상임이사, 김지영 지도상무 등 25여명이 참석했다. 다문화여성대학은 관내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보다 안정적인 농촌사회 정착을 돕기 위한 취지로 기획됐다.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등 15명의 결혼이민여성이 참여해 9월 초부터 매주 토요일 총 10주 동안 진행됐다.

교육과정은 한국어교육, 한국전통 예절교육, 음식체험, 공예품 만들기, 김장김치 담그기 등이었으며 “매우 만족한다”고 평가했다.

김법진 조합장은 “수료생들이 한국문화를 이해하고 안정적으로 적응하는데 도움이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담양=정성균기자

결론

▲진명선·김옥임씨 장남 현호(부안해양경찰서 수사과)군, 박천재·정경자씨 장녀 운형(부안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양=7일(토) 오후 1시 광주 광산구 무진대로 282 메리포엠웨딩홀 지하1층 메이에르홀.

▲송생석·한추임씨 장남 시온(장흥경찰서 수사과 근무)군, 노대현(고서종합건축 대표)·김미례씨 장녀 혜수양=7일(토) 낮 12시 광주 북구 동문대로 287 까사디루체웨딩홀 1층 루체홀.062-710-4000, 010-3627-5487.

부음

▲박순님씨 별세. 정민석(KIA 타이거즈 광고상품/W/G 프로씨 외조모양=발인 5일(목) 오전 8시30분 광주 스카이장례식장 20호.